

[사회]

'님비' 여전... 해결책 없나

하수처리장·폐기물매립장·골프장 등 갈등 광주·전남 작년 637건...올들어서만 13건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노인요양시설 등 기피 시설 조성을 거부하는 이른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책사업인 노인요양원을 비롯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음식 사료화공장, 하수처리장 등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들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장기 표류 중이다. 골프장 조성·양계장 건축·사료 제조업체·납골당 건립 등 기업이나 개인들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도 지역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30일 전남지방경찰청과 광주·전남지역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올 들어 1월 한 달 동안 각종 민원 성 집회는 13건에 이른다. 지난해는 모두 637건이었다.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는 남구 봉선동 안에 노인요양원 건립 반대 시위. 지난해 4월 노인수발보조원 시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남구청

은 봉선동 안에 동산 내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노인 65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 요양원을 신축, 올 1월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해 8월부터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시행 중인 노인수발보조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준공돼 현재 시험가동 중인 광산구 송대 하수처리장도 주민들이 "악취와 폐수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가동 중지를 주장하고 있다. 광산구 동곡의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공장도 "악취 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시끄러운 상태다.

영광 흥농을 쓰레기 소각장 가동 반대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26일부터 영광군청 앞에서 '쓰레기 소각장 가동 반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는 흥농을 일대 3만 평에 예산 152억원이 투입돼 조성된 소각장(1일 20t처리)과 재활용품 선별장(1일 10t)이 준

공감사 뒤 시범가동을 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 많은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화순군 한천면 가암리에 조성될 예정인 폐기물종합 처리시설(예산 203억원)도 주민들이 공사장 출입을 봉쇄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순천·무안·함평 등에도 폐기물종합 처리시설 조성을 둘러싸고 주민과 자치단체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일대 26만 평에 18층 규모의 '플린켈리 골프장' 조성사업은 땅을 파기도 전인 9월부터 "악취와 소음,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면서 아예 여수시청에 매립장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국책사업 중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여전하다"며 "무작정 반대보다는 대안을 마련한 반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님비' 극복... 해결책 있다

광주 북구청·영암군, 주민들과 대화 또 대화 노인시설·소각장 혐오시설 인식 없애고 합의

노인복지시설과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추진해온 광주 북구청과 영암군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님비'를 극복한 두 행정기관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북구 생용동 주민들은 노인 68명을 수용하는 '자비전문요양시설'(연면적 1천752㎡) 건립계획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반대에 나섰다. 수차례 구청과 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요청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민원을 내고, 11월부터는 예정지 앞에 천막을 치고 매일 8~9시간씩 농성을 벌였다.

시설 건립을 추진한 '한울 복지재단' 측은 대구 '열애원'·대전 '자애은빛마을' 등 대도시의 노인 요양시설을 직접 돌며 관련자료를 만들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알렸다. 물리치료실·목욕탕 등 편의시설도 무료로 제공하고, 요양원에서 먹는 식품(야채·고추·콩 등)을 마을에서 사겠다고 약속했다. 또 어려운 세대에 연탄 등을 공급하고, 주민 '돌봄이'를 공견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북구청 관계자들도 매일같이 '발품을 팔아 주민을 설득, 최

근 공사를 착수하는데 합의했다.

지난 2001년부터 6년을 표류하던 영암군 군서면 생활쓰레기 소각시설(1일 30t) 문제도 지난 24일 해결됐다. 영암군은 입지를 공모, 당초 예정지에서 20km 떨어진 곳인 '군서면 도장리'로 부지를 옮겼다. 주변 27개 마을 200여 명과 함께 영암과 환경이 비슷한 경북 상주를 견학, 주민의 이해를 구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주민 참여 시스템을 마련,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 게 주효했다"며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행정기관과 추진 주체의 꾸준한 노력과 투명한 일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암=김현남기자 hnkim@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홍물 남광주 철교, 미술작품 '변신'

디자인 비엔날레 맞춰 설치

홍물로 남아있는 남광주 철교가 공공미술 작품으로 변신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10월5일에 개막하는 제2회 디자인 비엔날레의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사업으로 남광주 폐 철교를 선정, 공공미술 설치작업을 벌인다.

'철길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추진되는 이 프로젝트는 광주를 상징하는

빛을 형상화한 조명 등 작품을 설치하거나, 철교 자체를 디자인 작품으로 만드는 작업이다.

또 철교 주변에 디자인 비엔날레 출품작 일부를 배치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포함됐다.

시는 광주비엔날레 재단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협의한 뒤 디자인비엔날레 개막 일정에 맞춰 설치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영하 한파 속 눈·비

1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광주·전남에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오후 늦게 비 또는 눈이 올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1~3cm,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다.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1일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로 매서운 한파

(寒波)가 몰아칠 것으로 예보했다. 전남도 순천 영하 6도, 해남·장흥 영하 5도, 고흥 영하 4도 등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 전망이다.

추위는 다음달 2일까지 계속되다가 찬 대륙고기압 세력이 약해지면서 3일께 서서히 풀릴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어둠을 가르는 눈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오후 늦게 눈 또는 비가 오겠다.

1월 31일
(음 12월 13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많고 눈/비	-3~3℃
목포	구름많고 눈/비	-1~4℃
여수	구름많음	-1~4℃
순천	구름많고 눈/비	-5~4℃
해남	구름많음	-5~5℃
영광	구름많음	-5~4℃
영암	구름많고 눈/비	-6~5℃
무안	구름많고 눈/비	-2~4℃
담양	구름많고 눈/비	-3~4℃
진안	구름많고 눈/비	-3~3℃
완주	구름많고 눈/비	-7~3℃
고흥	구름많고 눈/비	-3~3℃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면바다=서~북서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면바다=서~북서풍 파고 1.5~3.0m
목포 밀물 < 00:09 썰물 < 05:51
13:24 18:51
여수 밀물 < 08:30 썰물 < 00:44
20:27 14:38

▲해돋이 07:33 ▲해질 17:59 ▲달출 15:50 ▲달몰 06:16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2/1(목)	2/2(금)	3(토)	4(일)	5(월)	6(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3/1	-4/2	-3/8	0/10	3/10	2/9



확 뚫린 도로
광주 남구 대촌동사무소~포충사 인근 삼거리에 이르는 2.46km 도로의 4차선 확장공사가 마무리돼 2월1일 우선 개통된다. 시는 이번에 개통하지 않은 포충사 인근 삼거리에서 국도 1호선 구간 1.46km도 올해 말까지 원전 개통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국비 등 190억원을 투입해 대촌동사무소~국도 1호선간 기존 8m(2차선) 도로를 20m(4차선)도로로 확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북구청 '기업사랑 운동' 전개

광주시 북구청이 2월부터 '기업 사랑운동'을 전개한다.

'기업 사랑운동'은 지역 주민과 단체가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 기업사랑을 범시민 참여운동으로 확산시키는 취지로 ▲북구 기업사랑운동 기반 마련 ▲주민참여 분위기 형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이다.

북구는 25명 안팎으로 구성된 '기업 지원위원회'를 구성, 참여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는 3월15일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주민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매

달 1차례 1기업 1담당제를 운영하고, ▲기업사랑 홍보 알림이제 ▲기업사랑 사이버 홍보관 개설 ▲경제아카데미 운영 ▲우리 지역 제품 사주기 운동 ▲기업제품 'BUY-DAY의 날'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또 ▲기업지원 콜서비스제 운영 ▲첨단과학산업단지 행정지원센터 설치 ▲상설 전시코너 운영 ▲우수제품 전시회 ▲우수기업 및 모범 근로자 표창 ▲한·중 경제교류 확대 등의 6개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서구청 오늘 '행복나눔 장터'

상태 좋은 중고 물품 싸게 구입하고, 불우이웃도 도우세요.

광주시 서구청이 31일 생촌동 일신아파트 앞에서 '행복나눔 장터'를 운영한다.

장터에는 전주원 청장을 비롯해 서구청 전 직원이 기증한 의류·신발·가방·가전제품·아동용품·서적·스포츠용품 등 5천여 점이 매물로 나오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난치병 환자 및 불우 이웃을

돕는데 사용된다.

또 전 청장과 서구청 간부 및 자원봉사 단체인 '너티나무' 회원 등 100여 명이 일일 자원봉사로 나서 직접 물품을 팔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물품을 재활용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번 장터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주희기자 jhlim@kwangju.co.kr

정해년 새해! 광양 발전을 기원합니다

<p>광양·구례국회의원 의회 광양시 광양경찰서 광양교육청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광양소방서 광양우체국 한국전력공사광양지점 KT광양지점 광양항만항운노동조합</p>	<p>원우윤근 장김성국 장김제중 장정이기 장이관형 장송영수 장이인선 장김광진 장김영용</p>	<p>전남드래곤즈프로축구단 농협중앙회광양시지부 동광양농업협동조합 대한시멘트주식회사 스포츠렉스 남경건설주식회사 성보산업주식회사 유일주맥 주식회사알텍스 부국산업주식회사</p>	<p>대표이사공윤찬 지부장김용복 조합장정윤선 대표이사장철헤 대표이사문계용 임직원일동 임직원일동 대표이사이상윤 직원일동 직원일동</p>	<p>주식회사원창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광양제철소외주파트너사회 주식회사승일개발 시장악국 웰빙부동산 원진공인중개사 대원부동산 금강공인중개사 신세계건설 중마정례식장</p>	<p>대표이사분승표 직원일동 회원사일동 대표이사장윤태 대표이문준 대표이북기 대표이혁정 대표박부홍 대표송동석</p>
--	---	--	--	--	---